

연등에도 '현대화' 바람

철사·플 사용않은 흥법등 환경보호 동참 가정선 종이컵 재활용·광섬유 등도 등장

사월 초과일을 한달남짓 앞두고 빈내일등의 교환을 되 세기며 우리마을의 불성을 밝혀줄 등이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불교용품에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연꽃모양의 연등, 팔정도등 상징하는 팔각등, 주팔등등 비록 환경보호를 고려해 제작된 등과 칠단 기술과 예술성을 융합시킨 광섬유 연등등 새롭게 시도되는 연등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다. 이 등들은 종이, 천, 비닐, 고무, 플라스틱, 광섬유 등 재질과 모양에 따라 그 느낌이 다르며 전달되며 관계 품과 조립제품으로 나뉘어 주문제작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에는 환경문제와 관련해 환경보호를 고려한 연등으로 부처님 오신날을 더욱 밝고 깨끗하게 밝히려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철사와 플 없이 한번에 완성되는 흥법등을 고안한 흥법 기획의 김성수사장은 "순수 천연염색을 사용 재사용과 재 처리를 용이하게 해 환경과 자원, 사용자의 편리까지를 고려했다"면서 환경보호에 앞장설 것임을 자부했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도 매년 발행되는 불경행사 등의 제작과 사용후 관리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당부하며 환경보호에 불교계가 더욱 적극 동참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사찰에 발송하기도 했다.

환경보호적인 측면과 함께



◇ 흥법등, 광섬유 연등, 장식용 소형연등등 다양한 연등이 선보이고 있다.

현대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을 가미한 등도 선보이고 있다.

94년 봄부터 소개된 광섬유 연등이 바로 그것. 석화무역 작가인 박인숙씨가 제작한 광섬유연등은 기본연등모양에 꽃잎이 어우러져 5~7가지 색의 빛이 교차로 발한다. 현재 의장등록 및 특허권을 획득한 이 광섬유연등은 가정불단을 꾸미거나 장식용으로 주문제작되는데 가격이 30만원이상으로 일반연등에 비해 비싸 대량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중이다.

이러한 것들과 함께 장식성을 가미한 작은 모형연등, 연꽃위에 동자가 합장한 모습의 등자연등, 연등등이 그려진 자통자나 가정의 장식용 연등도 판매중이다.

가정에서도 종이컵등 재활용품을 모아 가족이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며 고행등을

을 만들고 등불공양의 의미를 나누기도 한다.

"종이컵으로 연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재미있어요"라고 말하는 한 지인(서울 보문국교 3)어린이는 "부처님오신날에 제가 만든 연등에 불을 밝혀 어머니와 함께 제등행렬에 참여하기로 약속했어요"라면서 호쾌하게 말했다. 불교의 현대화와 함께 연등의 모양과 패턴도 조금씩 변화를 맞고 있다.

불자들은 전통불교의 바탕 위에 현대적 미적 감각과 환경보호등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한 새롭고 다양한 등의 출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 "등의 종류와 모습은 달라도 무명을 밝히고 공생을 구제한다는 등 밝히는 그 마음은 언제나 한가지여야 할 것이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지 기지>

사회 복지관	진료 내용	전화
서울 본동 삼진길	소아과, 내과, 물리치료, 한방, 내과	02)817-8052 02)421-6077 02)985-0161
경상 개곡중리	내과, 외과, 관절, 신경통, 한방, 소아과, 안과, 치과	051)893-5034 051) 52-8017
전라 승광우산문수	관절교정, 물리치료, 수지침, 내과, 관절교정, 지압, 내과, 물리치료	062)941-8248 062)266-3853 0662)652-4242
충청 범동금강	한방, 침술, 안마, 물리치료, 한방, 내과, 물리치료	042)633-1141 0461)856-5634
강원 영춘속삭	내과, 한방, 물리치료, 지압, 물리치료	0371)762-8131 0392) 34-7017 0397) 73-6168

합동복지관, 강릉복지관, 생활불교회관 등 그외복지관 비정기적 무료진료실시.

복지관 무료진료 주민 "발길"

경남 창원 종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홍순)은 연일 무료진료를 받기위해 들이치는 지역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는 한방진료와 피부비뇨기과 진료·플체주 일요일은 치과진료·셋째주 토요일은 소아과진료·넷째주 일요일엔 안과진료를 그리고 분기별로 종합검진도 시행한다.

대전 범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진숙)도 매주 월요일마다 한방진료를 금요일에는 지압·안마서비스 그리고 물리치료를 운영, 지역주민들에게 기초적인 치료와 건강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지역주민의 열렬한 호응속에 지역병원과 보건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료진료는 복지관의 중요한 지역복지프로그램의 하나로 정착되고 있다.

이들 무료진료는 노인, 소년소녀가장, 영세민들을 주 대상으로 기본적인 일차진료를 실시하며 무료로 약을 조

제해 주기도 하고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가정 방문 치료도 하기도 한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박현숙복지사는 "92년 개관이후부터 연세대 원주의대와 원주간호전문대 상주대 한의과 학생과 교수들의 협조로 무료진료를 실시해 왔다"면서 "무료진료의 실시로 주민들의 복지관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으로 바뀌어 보람을 느낀다"고

무료진료에도 복지관중에는 상설의료진료소 운영, 지압·안마서비스, 뼈·척추교정, 건강상담교실을 운영하는 곳들도 있다.

특히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복지관의 무료진료는 주민들에게 쉽고, 가깝게, 그리고 경제적 부담없이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장기적이고 정밀한 치료서비스제공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은>

만 화

법구경

* 꽃의 장 *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

이 랑 원

영철아 도시락 다 썼다
이! 도시락이 또 놓였네요
어려운 할머니를 한분 더 알게 돼서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 죄송해요
저... 그런데 오늘은 학교에 꼭 한번 오셔야겠어요

에, 어머니
아무리 늦어도 기다리시겠어요
아줌마
오늘은 5개만 더 주세요
어머니 오늘도 여전히 도시락이 한 점이에요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저런분이 세상에 또 있을까
자신도 어려운 형편인데 매일
어머세요 잘 드실수 있겠어요?
알! 이렇게 챙겨 주시는 정성이 어딘데 잘 먹어야지
할아버지 다리는 좀 어떠세요?
주물러 드릴까요?

자식새끼도 나 몰라라 하는 데 하루같이... 면목이 없소 이다
너무 원망 마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세요
영희네 7개지?
우린 3개요
어머니!
주인 없는 물건 함부로 손대서 미안해요

일일이 배달할 것 있나
다 불러서 갖고 가라고 했지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해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
견단도 타카리도 자스민도 마찬가지로
* 견단, 타카리, 자스민은 모두 뛰어난 향나무

미스터 박은 마음이 참 좋은가봐
난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니까
그런데 동전 몇 닢은 너무 썼다
많이 주고 싶지만 우리 데이트 비용도 생각 해야지
견단과 타카리의 푸른 연꽃 그리고 밧시키등 여러가지 향기가 있지만 덕행의 향기가 가장 뛰어나다
* 밧시키 향나무 이름

그러나 덕이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에 풍긴다
내내 견고 수석에 모범생인 영철이 어머니가 어떤 분 인지 꼭 뵈고 싶어요
모두 선생님의 덕택이지요
견단과 타카리의 푸른 연꽃 그리고 밧시키등 여러가지 향기가 있지만 덕행의 향기가 가장 뛰어나다
* 밧시키 향나무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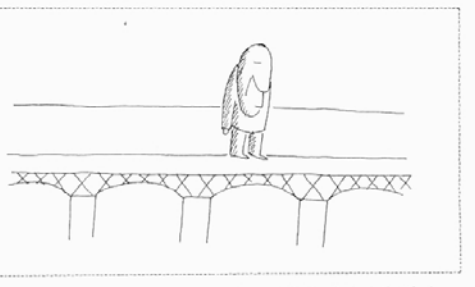
타카리, 견단의 향기는 오히려 미미해서 대안치 않아요
덕행이 있는 사람의 향기는 최상의 것으로 하늘의 신들에게 까지 번져간다

디드러라는 사람이 동모랑 사에 살고 있는 뭇소를 찾아 갔다. 마침 뭇소는 그의 정원에 있는 연못 주위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찾아온 디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나는 스무번이나 이 연못에서 투신자살을 하려고 했었

죽고 싶어도 숨이 답답할 것 같아 못죽었다는 이야기와 같다. 돌기에 따라서는 재치 있는 말로도 들리지만 사람의 밑바탕을 뒤집어 보인 말과도 같아 재미있다.

사람의 무의식 가운데는 투기자를 대비시켜 생각한 것들이 많다. 가령 프로이트라는 발군의 정신분석학자는 무의식과 의식을 구분하면서 무의식 속에는 삶의 본능과

능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살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심층적으로 연구한 논문 가운데 자살의 이유를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역설적인 논리를 증명한 논문도 있다. 열띤 토론기에는 죽음이 두려우면 죽음이 없는 곳으로 멀리 피할 것 같지만 같은데 왜 자살을 하는 것일까 의문이 생긴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은 확실한 살생

우리는 어릴때 예방주사를 맞았던 경험을 모두 갖고 있을 것이다.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모두들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었던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주사도 먼저 맞으려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더런 것을 생각하면 의문을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자연사의 죽음을 기다리지 못하고 죽음이 두려운 나머지 죽음을 앞당겨 새치기하는 행동양식이라는 설명이다. 차례를 기다릴 만큼 마음의 안정을 갖지 못하니 스스로 앞당겨 목숨을 끊음으로써 발등에 떨어진 죽음을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어리석음이라 하겠다. 백영경에 나오는 눈병을 앓

는 여인의 이야기와 같다. 눈병을 앓는 여인을 본 친구가 자신도 친구처럼 눈병이 나서 고통스러울까 두려워 눈을 뽀아버리는 어리석음과 같은 것이다.

남을 죽이면 살인이 된다. 살인을 자신에게로 내재화시키면 그게 바로 자살이 되는 것이다. 살생을 말라고 했는데 가장 존귀한 자신을 죽이는 자살은 확실한 살생이다.

이만후 전강칼럼

<18> 자살

너, 그런데 내가 연못에 손을 담구어 보았더니 차가워서 견딜 수가 없어이지" 뭇소의 말인즉 죽고 싶었으나 물에 빠지면 물이 차가운데니가 그래서 자살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목을 매어

불 교 성 지 순례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 소장(부처님고행상)

파키스탄 간다라 불교유적 순례 9일

※ 대한항공 특별전세기편으로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출발: 5월 13일(단회) ·동참금: 140만원
·일정: 서울-이슬라마바드-탁실라(자울리안 불교대학 터)-스왓(붓가라, 타키투비)-탁티바히-페샤와르-라호르-이슬라마바드-서울

■여행조건 ●복합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인원: 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티벳·네팔 10일

·출발: 4월 8일 ·동참금: 230만원
·일정: 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장제-시가체-라사-카트만두-서울

인도·네팔·태국 10일

·출발: 4월 21일 ·동참금: 150만원
·일정: 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위산-죽림정사-바이살리-쿠시나가르-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라이앵부넛)-방콕(새벽사원 에메랄드 사원)-서울

스리랑카 6일

·출발: 3월 24일, 4월 21일 ·동참금: 118만원
·일정: 서울-콜롬보-이누라다푸라-하바라나-풀론나루와-시기리야-하바라나-뎀볼라-아루비히르-캔디-콜롬보-서울

인도네시아 5일

·출발: 4월 16일 ·동참금: 95만원
·일정: 서울-덴파사-족자카르타-자카르타-서울

대만 5일

·출발: 4월 21일 ·동참금: 65만원
·일정: 서울-타이페이-고웅-화련-타이페이-서울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협찬: 대한항공